



OUR TIME : November 2018, The good friends of Vietnam



OUR TIME

The
Good
Friends
Of
VIETNAM
NOVEMBER

들어가며

라운아띠 18기 베트남팀 시간 '십일월'을 기록하다.

어느덧 우리 베트남팀이 한국을 떠나 호치민에 온 지도
세번째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개월의 국제자원활동 기간 중 절반까지 달려온 우리.
우리는 그러한 시간 십일월을 소중히 보냈고
그 시간을 소중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OUR TIME

우리 시간 십일월

함께 하다

변화하다

활동하다

살아가다

고민하다

돌아보다

기록하다

십 일 월 함께 하 다



좋은 친구들
재열, 상표, 소희, 수연, 수민

우리는 함께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십 일 월 변화하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YSD가 라온아띠에게 이야기한 것은 9, 10, 11월 각각 주제가 있다고 했었다. 9월은 어린이, 10월은 환경과 농업, 11월은 의료와 건강이었다. 그러나 10월 YSD와 소통을 하면서 10월의 주제에 농업이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 환경이라는 주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YSD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베트남을 경험하고 3개월이 끝난 뒤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직접 베트남의 사회적 문제들을 찾기에 우리의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YSD에 새로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11월부터는 주 대상을 '아이'로 지정하고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보지 못한 환경을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보다 다양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생겨났고, 그 과정을 통해 9, 10월과는 또다른 배움과 동시에 고된 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11월 활동은 보다 우리가 베트남을 폭넓게 경험하고, 직접 우리가 스스로의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십 일 월 활동하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파고다	2 프로젝트 회의	3 니앰편
4 위클리 리포트	5 파고다 베트남어	6 파고다	7 아동병원	8 책상공장	9	10
11 위클리 리포트	12 파고다 베트남어	13 파고다	14 컨설팅	15 아동병원 트레이닝	16	17 중학교활동 필드트립
18 세이브씨 위클리 리포트	19 파고다 베트남어 프로젝트 회의	20 패스웨이 프로젝트 회의	21 파고다 컨설팅	22 컨설팅 안	23 트레이닝	24 아동병원
25 위클리 리포트	26 파고다 베트남어	27 파고다 컨설팅	28 패스웨이	29 패스웨이	30	

The Niem Tin Caritas



11월이 되며 NiemTin에서 활동이 한달 하고 반이 지나갔다. 활동이 계속 되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관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의문점이 생겨났다. 아이들의 불규칙한 방문에 의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닌, 팀원 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반복 되면서 '계속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겼고 팀원 간 많은 토의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활동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의 피드백을 위해 YSD에 전달하고, 피드백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 나갔다.

활동하러 가는 어느 날, Blair로부터 마지막 활동이라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우리는 그 날을 마지막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갑작스런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NiemTin 활동이 중단 된 이유는 이후 YSD 담당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YSD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솔루션으로 활동중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는 단지 YSD로부터 피드백을 원했던 것인데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무리와 끝에 아쉬움이 남지만, 활동은 종료 되었다.

저희는 이 곳 'NiemTin'이라는 기관을 통해 뇌성마비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이 곳에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수녀님, 아이들, 부모님, 치료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성장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기관이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Thanks and Good Bye

The Niem Tin Caritas: 수녀님 피드백

1. The pros and cons of RaonAtti's members during participated in Caritas

Pros: Young, proactive, enthusiastic. These characteristics bring a lot of happiness for children in the Mid-Autumn festivals and the home; Willing to learn, good listening; Efforts in intergration of home environment and facility.

Cons: Languages barriers, there has a distance of communication among Caritas's staffs, parents and other volunteers; Rehabilitation for palsy children, which is not relevant in your main major, is hard to support for children as planned; Activity Objectives: RaonAtti team is going to organize activities for children,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topics (art, music, etc.), haven't made yet.

Difficulties (from Caritas): During internship time, Caritas was upgrading their facilities (air condition), the schedule in here had to stop for 2 weeks. Caritas's Home is a place mainly work on rehabilitation for children, not a baby-care centre so parents take their children to the home to get treatments here then leave. From it, it's hard for RaonAtti's members to follow up and take care for children oftenly. So, the beginning goals as mentioned, each team member would be in charge of each children and have activity with them, haven't finished yet.

2. Working methods (RaonAtti's members, Vietnamese volunteers, Y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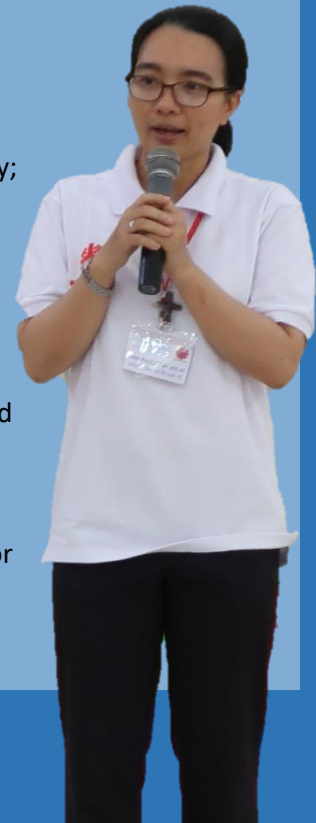
YSD: polite, thoughtful, well-organized

Vietnamese volunteers: enthusiastic, cheerful

RaonAtti's team: (as mentioned above)

3. Suggestions

RaonAtti's Team: If possible working on palsy children, learning and researching more information about palsy children and how to get connect with them are very necessary; Should take initiative in building and organizing activities for children: playground, entertainment, drawing, musical, etc.; Practicing English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Should introduce and have some skilled classes before going to Caritas; Should share expectations, objectives and period of time in detail; Should arrange time to have a meeting between YSD and Caritas, mid-term or final evaluation about RaonAtti's activities, instead of calling or email.



The Ky Quang Pagoda



11월에도 Ky Quang Pagoda에서의 활동은 계속 되었다. 11월 활동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팀원 각자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와 색칠공부 등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았다. 또한 이 곳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자 생활공간, 학습공간, 놀이공간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도 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넘어 공동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행동하였다. 우리 팀은 Ky Quang Pagoda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좋지만,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놀이방 시설에 대해 청소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를 진행하였다.

The Ky Quang Pagoda

오 재 열 의 생 각 정 리



Ky Quang Pagoda에서 보내는 시간은 호치민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과 교류는 좀 더 깊어지고 있다. 처음의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포옹을 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활동이 끝나는 시간에는 아쉬움이 마음에 한가득 남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 이곳을 방문하고 나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방문 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에 휩싸였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것을 고민했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라온아띠가 말하는 '주변인'. 나는 손님이고 주변인인데 이곳에서 무언가를 실행하려 하는 생각과 상황에 너무나도 흔들려 버린 것만 같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파고다 활동의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아이들 한번 더 놀아주고 웃겨주는 것이었다.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분명한 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니 이유와 목적은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나의 마음에 다시 잡고 파고다에서 방문한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 곳을 떠나는 날, '나'와 '아이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내가 고민 걱정을 하는 것 보다는 서로 더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믿는다.

이 상 표 의 생 각 정 리



Ky Quang Pagoda에 대한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 Ky Quang Pagoda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과연 Ky Quang Pagoda의 환경 어린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의 지점은 수시로 바뀌는 봉사자이다. 베트남인 봉사자는 어린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기부가 목표이고, 머무르는 시간도 매우 짧다. 베트남인을 제외한 외국에서 오는 봉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봉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온아띠를 제외하고는 최대 2달 정도 머무르는 것이 사실이며 어린이들과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하다. 봉사자들 대부분 어린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중·장기적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애착 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애착장애로 판단되는 행동도 많이 한다. 아주 작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우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안아주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부족하거나 망가진 물건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주는 물건을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유치부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오면 1주일 이상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물론 '다른 어린이들도 비슷한데?'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Ky Quang Pagoda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많이 보였다.

마냥 Ky Quang Pagoda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Ky Quang Pagoda는 주어진 환경 내 에서라도 어린이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베트남의 사회복지제도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있다. 결론을 아직 나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결론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할 것이다.

The Ky Quang Pagoda

이 수 연 의 생 각 정 리



파고다는 이제 나에게 일상과도 같은 곳이다.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 하루의 흐름, 내가 해야 할 일 등 그곳에서 나는 충분히 잘 녹아 들고 있다. 파고다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이곳엔 워낙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이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이들과의 라포형성도 잘해내고 있고, 선생님들도 우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느껴지는 익숙함이 너무 좋다.

그러나 간혹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파고다의 공간이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 돌발행동들이 발견되는 날에는 또다시 파고다가 새롭고 낯설다. 그럴 때 마다 내가 이 곳에서 배워야 될 점, 노력해야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인다. 생각해보면 익숙하지만 항상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파고다 라는 공간에서 즐겁고 알차게 지낼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아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양소희의 생각정리



파고다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민이 많은 장소였다. 그리고 파고다가 우리 활동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변한 게 있다면, 처음 파고다 활동에서의 고민점이 '활동의 지속성 여부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파고다에서 내가 아이들과 사람들과 어떻게 더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여부를 떠나서 파고다는 나에게 정말 큰 하나의 힐링 장소이다. 그렇기에 파고다 가는 길은 항상 나에게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뜨게 해준다.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우리가 파고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곳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팀으로서도 우리가 고민해왔던 지점들을 돌아보며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수민의 생각정리



파고다는 이제 우리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이 되어버렸다. 이번 달 파고다 안에서 내 모습은 다소 지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나는 파고다에 많이 적응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에게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고, 부담스러운 면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다른 팀원들을 보면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각자의 일을 잘 찾아서 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더 열심히 아이들과 놀았던 것 같다. 파고다는 나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활동해야 하는 곳인 것 같다.

The Kyung P a g o d a

The Charity Club Activity



‘의대 봉사 동아리 활동’의 참여는 우리가 베트남의 의료환경을 보고 싶어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활동이다.

우리는 봉사동아리가 활동하는 장소에 참관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아동 의료 환경 그리고 대학 봉사동아리의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또래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동아리는 3곳의 활동지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30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이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The Charity Club Activity

The Charity Club Activity



Children Hospital 1st/2nd

호치민 아동병원의 환경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치료받고 상주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은 병실을 돌아다니며 함께 할 어린이를 모집하고 병원 복도 한편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주제와 교구로 활동했다. 꿈이나 비타민 같은 유익한 주제로 미술, 연극,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활동을 했다.

라운아피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동요 메들리(아기상어, 헬로우송)와 함께 율동을 하기도 했다. 의대 봉사 동아리원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교류를 하는지 보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Glass-Bone Center

뼈에 이상이 있는 GLASS BONE의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호치민에 위치한 센터이다. 우리는 이 곳 방문을 통해 또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를 만나고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동아리원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The Charity Club Activity : 생 각 정 리

오 재 열

병원 방문 전, 빈곤퇴치 캠페인을 하면서 아동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의견을 접한적이 있었지만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나는 많이 놀랐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어린이 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활해 온 환경과의 비교와 편견 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데로 비가오면 비가 오는 데로 병원 복도 한 켠에서 지내는 것이었다. 또 이런 모습이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이러한 문제를 가진 베트남에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한번 더 웃게 해주는 것이 나의 최선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대 학생들의 대단함을 느꼈다. 아이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되려 하고, 의사가 되기 전에도 아이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에 '멋지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11월 한달간 이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써 '노력'과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나에게 많은 배움과 경험이 되었다.

이 수 연

생각해보면 베트남 병원에 방문한 것은 이 활동을 위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지난 달에 빈곤퇴치캠페인 준비로 International hospital을 방문하긴 했지만 그 곳 시설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고, 무엇보다 병원 특성 상 현지인보단 외국인이 많은 병원이었다. 처음 이 곳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복도에 이불과 세면도구, 식기 도구 등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에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치료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한 베트남 대학생 봉사자들은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성인에게도 지루하고 따분한 병원생활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한 활동이었다. 이 활동으로 베트남의 사회문제를 또 하나 발견했다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만의 프로젝트로도 진행해보고 싶은 활동이었다.

The Charity Club Activity : 생 각 정 리

이 상 표

어린이병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준 활동이었다. 우선, 베트남의 의료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활동이다. 한국의 경우 신장투석을 하는 (어린이, 성인) 환자는 기타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집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주 2~3회 인근 투석이 가능한 병원이나 센터를 통해 투석한다. 그러나 어린이병원에서 만난 베트남 어린이 병원에서 지냈다. 집과 투석가능한 병원이 멀어 통원하는 것이 어렵고,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처음에 신장투석을 하는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장투석을 하면서 왜 입원을 하지?'라는 나의 궁금증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대답이었다.

병원의 시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병원환경이 너무 궁금해서 찌러이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병실 복도에도 환자침대(베드)가 나와있었다. 보호자를 위한 간이 침대는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갖추고 있는 시

설이지만 이 곳에서는 간이 침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모든 환자침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물론 어린이병원의 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설 면에서 약간 더 좋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병원의 열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 없는 공간에 돗자리를 펴고, 교육용 교구를 손수 만들어 어린이에게 교육했다. 교육의 내용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자칫 재미에 치우쳐 교육의 본래 취지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많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어린이병원에서의 활동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의료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경험과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한다.

The Charity Club Activity : 생 각 정 리

이 수 민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복도에 돛자리나 간이침대 같은 곳에 누워있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입원하지 못해 복도에서 지내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곳에서 진료와 치료가 잘 이루어질까? 생각했지만,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소독하고 진료하는 모습은 어느 병원과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병원에 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하는 의대 클럽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 학생들은 꾸준히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예정이었다.

나는 베트남의 의료시설을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해야함을 느꼈다.

양 소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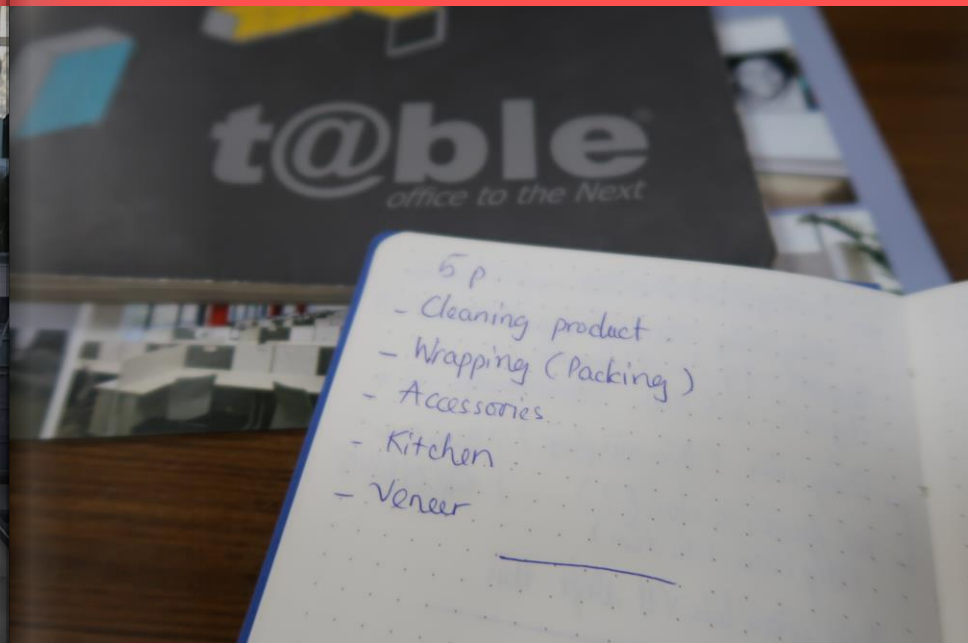
사실, 베트남의 현지 병원을 다니면서 한국과는 다른 환경들을 보고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나는 병원과 glass bone center를 다니면서 조금 내 자신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도 이런 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그 친구들의 삶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 같다. 봉사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외에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 봉사를 많이 다녔다는 이유로 자만했던 나에게 스스로 나무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다.

The Furniture Factory



베트남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싶었다. 특히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는 YSD에 전달했고, Blair의 도움으로 우리는 베트남의 가구공장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기업 FAV는 사무실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직원이 약 200명이 근무하는 규모의 공장이며, 제품을 베트남 국내 뿐만 아니라 미주까지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다.



또 이곳은 가구의 틀 제작부터 조립부터 포장까지 가구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생산하는 곳으로 다양한 공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운아띠는 각각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해보았다.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기도 했고, 완성된 가구를 포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노동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KITCHEN & ASSEMBLE

나의 업무

나는 오전에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를 하였다. 모든 음식을 일일이 다 준비하였고 테이블 세팅과 배식까지 하며 오전업무를 끝냈었다.

오후에는 서랍장을 조립하는 파트에서 일을 하였다. 순서에 맞게 합판과 나사를 이용해 서랍장을 조립하였다.

나의 느낌

가구공장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히 이곳 호치민에서 말이다. 처음에 블레어가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장에서 일해보는 것이었다. 맨 처음에 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당황스러웠다. 나는 견학일정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일을 한다고 해서 말이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의미 있었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공업에 일손이 되어 베트남 직원들과 일을 해보고 교류를 하고 또 다른 환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공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여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판단을 할 수는 없었지만 판단을 할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곳의 그 모습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준비 할 때는 주방 직원분들과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과 몸짓으로 일을 해보고, 또 서랍장 조립 업무를 할 때는 또래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비록 활동하는 내내 소통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에 즐거움이 더 많았기에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보았기에 블레어의 깜짝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다.





WR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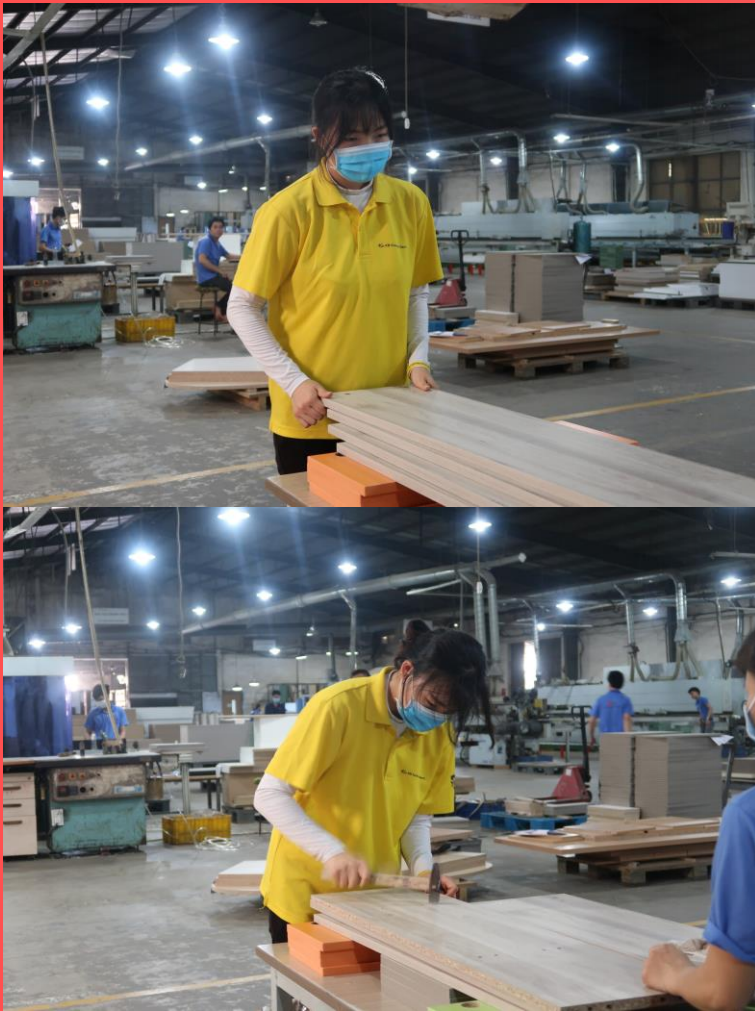
너무 하고 싶은 활동이었다. 전공과 관심사로 인해 베트남의 노동환경이 평소에 너무 궁금했고, 이를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블레어를 통해 가구공장에서 노동환경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안전해 보였다. 보통의 한국공장들과 유사하게 기계나 이동기구에는 안전장치들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 기계들도 대부분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수입한 기계이기에 안전장치의 수준도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천천히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면서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음을 확인했다.

내가 활동한 파트는 오전에는 포장, 오후에는 조립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특별한 공정을 제외하고는 항상 안전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었다. 작업하고 있는 물품을 놓칠 경우 발등에 찍힐 수 있고, 발등에 찍힐 경우 상당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갑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부분으로 손이 비거나 상처가 생기는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비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일부 단원의 경우 용액을 이용하여 가구를 닦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용액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만약 눈에 들어가거나 먹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경고 또한 없었다.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은 에어콤프레서를 이용한 도색작업이다. 한국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공장에서는 정말 ‘그냥’ 했다. 체험이 끝난 뒤 대부분의 단원들은 두통을 호소했고 나 역시도 그렇다. 다른 날보다 힘들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화학물질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안전관련 규제와 장비의 치명적인 단점은 ‘비용’이다. 모든 규제와 장비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유지된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제조비용이 낮은 것이 경쟁력인 개발도상국의 제조시설에서 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장비는 제조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의 삶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규제와 장비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LEANING

내가 이곳에서 맡은 역할은 재단된 판자를 잘 닦고 각 모서리에 나사를 박는 일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재미가 있었는데 오전이 지나, 오후로 가면서 점점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왔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힘이 되 주었던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들이었다. 서로 영어로 통하는 단어 라고는 ‘handsome’과 ‘pretty’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내내 웃을 수 있었고, 그 분들은 나의 말도 안 되는 베트남어를 어떻게든 이해하려 들어 주셨기에 짧은 단어로나마 서로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베트남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러 간 자리였지만, 물론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무엇보다 사람이 내 기억 속에 남는다.



ACCESSORIES

나는 가구 공장에서 가구에 필요한 못이나 나사 등 공구류 액세서리를 분리한 다음 개수에 맞게 포장하는 일을 했다. 한국에서도 해본 단순 노동이었지만 이곳은 그때와 달리 또 다른 느낌이었다.

베트남 현지 청년들 사이에 앉아 같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그들은 영어를 못했고,, 나는 베트남어를 못했,,)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했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같이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이라 우리를 경계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오면 먼저 경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무조건 경계하고 보는 내 모습을 반성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VENEER

내가 맡은 역할은 책상에 붙이는 장판?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얇은 나무 종이를 넓게 이어 붙이는 것이었다.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반복 작업과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오는 어깨와 목 때문에 힘들기도 하였다. 또한 공장 내에 매연과 먼지, 소음, 화학물질 등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마스크를 챙겨가지 않은 나는 탓했다.ㅠㅠ

이번 활동은 일회성 활동이었고, 작업에 능숙하지 않은 우리였기에 굉장히 한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룻동안 공장 시설, 근로자, 하루 일정 등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공장 안전 규정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화학약품 냄새가 심했고, 몇몇 근로자분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안전장비에 대한 규율의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귀찮음으로 이어지는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친절히 알려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했다. 씬감언

The Pathway School



우리는 베트남의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싶었다. 베트남의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립학교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이자 국제학교인 The Pathway Private School에 방문했다.

The Pathway Private School은 이 학교는 국제학교로 다양한 학생들



이 영어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의 교육관이 학생의 지혜와 도덕을 중요시 하는 학교로 명상과 선생님과 교류 등 많은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학교 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고, 베트남의 공립학교의 교육 환경과는 많이 달라 처음 방문한 의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교육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어떻게 교류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The Pathway Private School: Campus District 2



2군 캠퍼스의 첫 방문일 11월 20일은 베트남의 '스승의 날'이었다. 이날 선생님은 교육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일부 학급의 경우는 부모님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날 라온아띠는 3팀으로 나누어져 수업에 참관했다.



- 1) 9살 교실, 소희&수민: 종이접기와 노래 부르기를 함께 하였다.
- 2) 10살 교실, 상표&블레이어: 부모님이 진행하는 반미와 망고 스무디 만들기 활동에 함께하였다.
- 3) 11살 교실, 수연&재열: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류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같이 게임, 명상, 클레이 미술 활동 그리고 축구, 농구, 술래잡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였다.

The Pathway Private School: Campus District 12



캠퍼스 방문 날, 우리는 캠퍼스 투어를 하고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를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자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조언을 받는 시간도 있었다.

영어수업 참관은 7살 교실에 이루어졌다. 선생님은 즐거운 분위기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셨고, 우리는 영어단어 복습 시간에 퀴즈를 내봄으로서



교육활동 직접 참여해보았다.

11월 동안 The Pathway School에서 3번의 영어수업 참관이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새롭고 많은 것을 배웠다. 12월에는 교내 행사인 English Contest에 참여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오재열

이전에 국제학교에 방문 경험이 없었고, 특히 베트남에서 교육의 차이가 너무나도 궁금했다. 몇 한국의 가정도 아이교육을 위해 베트남으로 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던 하나로 전체를 판단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패스웨이를 갔을 때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들이고 싶었다. 나는 이곳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패스웨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너무나도 눈에 보일 정도로 실천과 실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You can do it', 'Try your best' 메시지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친구에게 자주하는 말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아이와 교류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볼 수 있었다. 또 '교육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와 선생님과 인터뷰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양소희

내가 호치민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낀 건 이 곳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빈부격차를 눈으로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도시이고 '부'라는 것이 외국 사람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pathway는 그런 '부'의 대표적인 교육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과 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등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단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 학교 자체가 놀라웠던 것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존중과 관계'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실천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이것도 잘 되어있는 교육의 연장선 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의 내린 '좋은 교육'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고려해보지 않은 새로운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이상표

Pathway School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베트남의 교육환경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다. 그러나 Pathway School은 International School이다. 베트남의 교육환경을 알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물론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이념, 교육방법 등 많은 지점들이 베트남의 일반적인 공립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교육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자 한다.

이수연

국제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학교 시설이 좋고,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하며 우리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과 언어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경험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베트남 현지 학교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단순히 방문으로 그친다면 볼 수 없는 베트남의 교육 시스템도 눈으로 보고싶은 바람이 있다.

이수민

나는 이곳에 처음 갔을 때 많이 놀랐다. path way는 국제 학교라 그런지 교실 환경, 학교 분위기, 놀이 시설 등이 이전에 갔던 베트남 국립학교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보였던 국립학교와 달리 이곳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배우고 소통하고, 학생들을 많이 존중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path way는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나에게는 자신 없는 활동 중 하나였다. 그래도 아이들과 소통하며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The Bentre Secondary School



2 0 1 8 1 1 1 7

The Bentre Secondary School



YSD의 제안으로 HochiMinh City가 아닌 BenTre City의 Secondary School에서 문화교류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9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양한 진행 방식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90명이 아닌 900명의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단원들은 경악했다. 그래도 어떤 방식의 문화교류가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계획했다. 계획한 활동을 토대로 밤마다 회의하고 연습했다. 그리고 사전에 학교를 방문해 교장선생님을 만나 활동의 디테일을 회의하고 승낙을 받으며 구체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갔었다.



예정된 일자에 실시했으면 했지만 정부의 허가 문제로 1주일이 연기되었다. 우리는 연기가 되며 정부의 거절이 될까 염려가 컸지만 승낙이 될 것 이라는 믿음과 연습할 시간이 1주일 더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문화교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우리의 활동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우리 또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 또한 YSD 친구들과 기획과 준비를 거쳐 실행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The BenTre Secondary School: 문화교류 활동



1.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는 활동의 시작을 한국문화의 대표인 'K-POP Dance'를 준비하여 공연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무대로 직접 불러 같이 춤을 추며 교류하는 활동을 했다.

다음으로 팀 소개를 하며 문화교류 활동을 시작하였다.



2. 한국-베트남 문화 교류

우리는 한국의 인사말, 지역, 학교 생활, 날씨,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한국어를 말해보고,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매운 라면을 학생들이 직접 먹어보는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소개가 끝이 나고는 베트남 친구가 우리에게 베트남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The BenTre Secondary School: 문화교류 활동



3. 태권도

우리는 또 다른 문화체험으로 태권도를 학생들과 함께 해보았다. 이날 우리는 태권도를 소개하고, 신나는 아리랑(BTS ver.)에 맞춰 태권도 품세 1장을 다같이 해보며 활동을 마쳤다.

문화교류활동에서 우리도 학생들도 서로의 것을 이해하고 따라하는데 있어서 어색함은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4. YSD X 라온아띠와 학생들의 만남

활동 이후, 우리는 몇몇의 학생들과 회의실에서 만나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준비해온 한국과자를 선물하고, 함께 학생들이 한국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의 모습,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와 친구들의 생각과 꿈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The BenTre Secondary School:생각정리

오재열

기회는 YSD로부터 주어졌지만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만들어 나간 활동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또한 좋은 경험이 되었고, 기억에 남는 이벤트활동으로 남을 것이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에 계획을 만들고 옹고 다시 만들고 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했지만 지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활동에서는 즐거웠고 웃음이 넘치는 상황에서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컨택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준비중 활동일정에 대해서 불 확실함이 생겼었다. 그래서 나는 블레어와 왕복 6시간 정도의 시간에 걸쳐 학교에 사전 방문을 했었다. 그 때, 활동을 허가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인이고 모든 것이 처음인 우리에게 학교의 허가과 정부의 허가가 쉽지 않은 것 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에 교류가 있었던 팀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받아 주시고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었다. 이 기회를 당연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운과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는 활동이 가능 했었다.

이수민

이곳 활동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라온아띠’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활동이라는 점에서 잊지 못할 활동이 된 것 같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준비를 하면서 점차 기대감으로 변했다. 또한 이곳이 우리의 잊지 못한 활동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곳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우리가 도착하자 마자 우리에게 환호를 보냈고, 문화 교류하는 시간 내내 우리를 응원했고 끝까지 환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또한 학생들과 서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습과 수업 방식을 볼 수 있어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되었다.

The BenTre Secondary School:생각정리

이상표

베트남의 중학생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학생들이 나를 포함한 단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었다. 그러나 열렬히 환호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준비하는 기간에 들었던 고생과 고민한 부분들이 사라졌다. 이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양소희

너무도 즐거웠던 기억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그저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를 너무도 환호해주며 프로그램을 함께 해준 학생들, 그리고 전에도 앞으로도 다시는 겪지 못할 거 같은 우리의 사인회...^^ 프로그램 후 몇몇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교류들. 정말로 우리만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양방향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던 고마운 기회였다!

이수연

문화교류 활동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고, 베트남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에게 그들의 고민과 생활 모습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취지였던 문화 교류와도 잘 부합했던 활동이라 평가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외국인인 우리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도 감사함을 느낀다.

THE FIELD-TRIP TO MEKONG



2 0 1 8 1 1 1 7

THE FIELD-TRIP TO MEKONG



우리는 이 날 강, 섬, 과수원을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의 특성이 드러나는 자연 환경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은 베트남의 남부의 끝으로 남부지방의 특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었다. 음식은 단맛이 강했고, 사람들은 Slow-Life로 살아가며, 친근함과 웃음이 넘쳐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역을 보며 베트남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경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라온아띠 만이 아닌 YSD 친구들과 함께 활동 함으로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YSD 친구들 덕분에 메콩강을 더 이해 할 수 있었고, 더 즐거운 필드트립이었다.

WITH MY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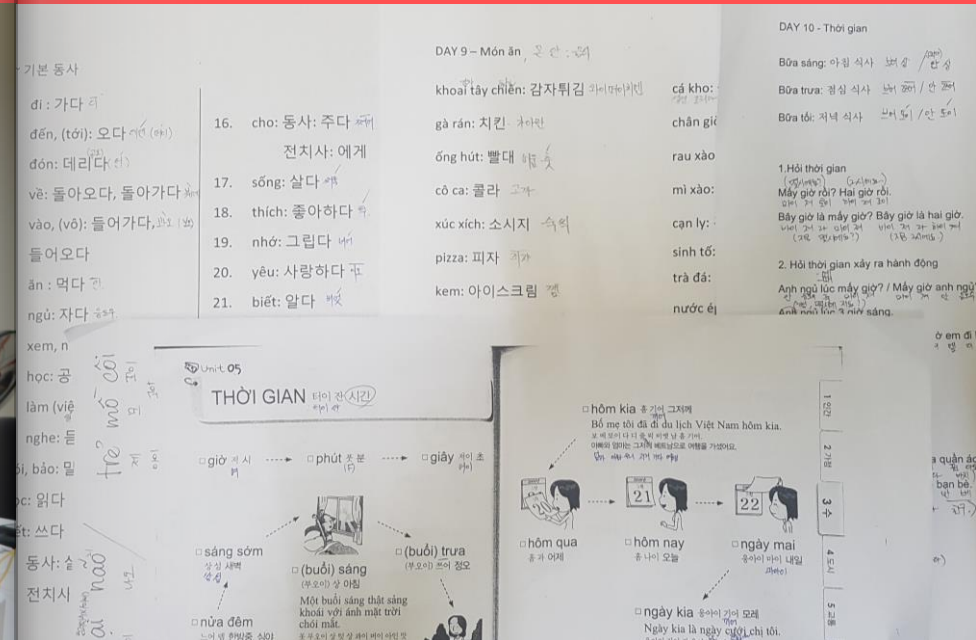
The Classes



The Training Class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YSD가 제안하여 우리는 어린이 프로젝트 디렉터인 Ha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다.

어린이의 뇌 구조에 따른 성향과 특징을 배우고, 그것을 활동에 적용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앞으로 진행할 팀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



The Vietnames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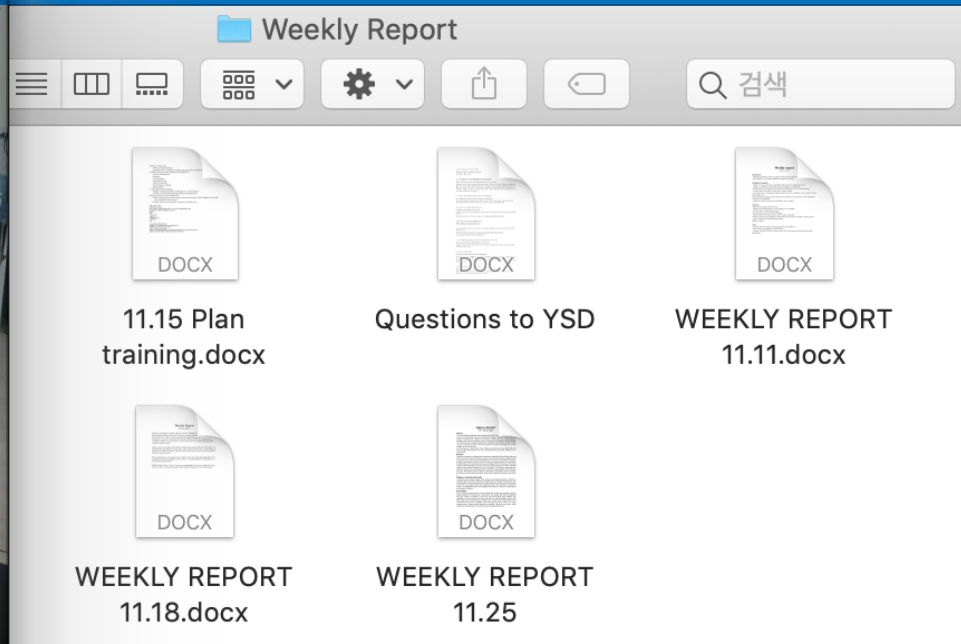
이번달에는 베트남어 동사, 음식, 그리고 대화문을 익히고 배운 단어로 게임을 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언어이지만, LY와 Nam으로부터 배움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천천히 베트남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베트남 사람들과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The Time With YSD



The Consulting Section

이번 한달 동안, 우리는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의 방향성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The Weekly Report

이번 한달 간도 YSD와 소통하기 위해 매주 Weekly Report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 주 일정에 대한 피드백, 고민거리 궁금증, 활동 소감 등을 계속해서 담아왔다.



십일월 살아가다 함께



소희야, 생일 축하해 :)



할머니, 보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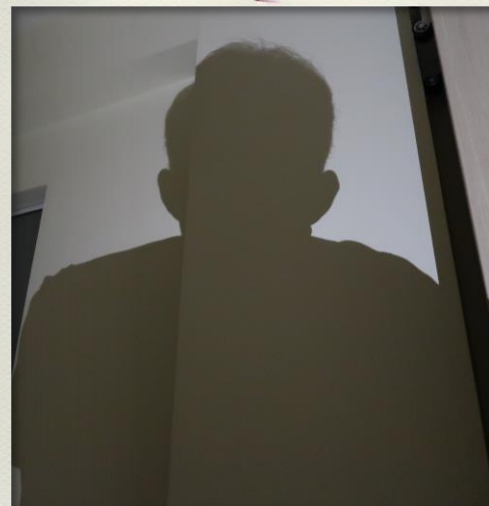
빼빼로 데이, 좋아좋아 수민상표



얀 만나러 가는 길



'Save Our Sea' Project



정전..나 뭐하지?심심해



태풍 온 날, 간식 히어로



Cooking Korean food for Blair

십 일 월 고민하다

지금 다시 본 10월의 고민

주제와 맞지 않는 활동, 오로지 아이의 초점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는 YSD와 토의를 통해 활동방향이 바뀌며, 고민이 해소가 되었다. 어려운 팀원의 속도 맞추기, 이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고민은 우리가 해결하는 고민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할 숙제이다.

지금 마주 한 11월의 고민

11월의 주된 고민은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주된 고민거리였다. 각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달랐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프로젝트로 녹여내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 하고 싶은 '주제'가 달랐기 때문이다.

'나'에서 '우리'로 함께 활동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11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고민 거리였고,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이다.



라온아띠

반바퀴를

돌아와 봐요





재열, 돌아보다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고 지원했었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었고 도전을 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힘을 받고도 싶었다. 또 그 과정에서 나를 알아가고 성장하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알아가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라온아띠 18기에 지원한 것은 현재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는 라온아띠를 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다. 조금도 많이도 아닌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말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사람들과 ‘잘’ 교류하고 싶었던 ‘나’이었는데, 지금 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라온아띠 오재열’로서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냥 좋은 시간만 가득해서 좋은 것이 아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해가면서 지낼 것이다. 지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는 내가 되기를 내 자신에게 바라고 부탁한다.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이란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현재 나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은 나에게 ‘당신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라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YES’인 것이다. 비록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말이다. 감정이 몸이 힘들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알아채고 행복을 즐기는 ‘나’와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상표, 돌아보다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고 지원했었나

국제개발협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개발협력과 원조와 관련한 논문과 자료집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생겼다. 대략적인 장래만을 생각했던 나에게 개발협력이라는 분야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라온아띠 포스터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온아띠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경험하고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싶었다.

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글쎄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단원들이 그렇다고 하니깐 ‘내가 바뀌고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크다. 라온아띠의 5개월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성장을 주는 활동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장은 결국 나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는 않다. 일상이 평화롭고 즐겁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기준을 갖고 보자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이 모두 다르다. 배부른 것이 행복일 수 있고, 평화롭고 안락한 것이 행복일 수 있다. 그러나 내 기준에 행복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 1~2개월간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이런 차원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베트남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물론, 행복하지 않다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다. 인생의 자투리가 아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베트남의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소희, 돌아보다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고 지원했었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받아서 보게 된 나의 라온아띠 자소서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을 거 같다. 나는 그저 ‘라온아띠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 온전히 ‘나’로서가 아닌 ‘라온아띠’로서 이 사회에 접근해보고 싶었고 ‘함께’ 함으로써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다. 지금도 그 시작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기존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국한되었던 삶에서 시선을 돌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내’가 아닌 ‘타자’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등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성장할 내가 기대된다.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은 나한테 참 어렵다. 내가 행복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꼈기에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고민이기도 했다. 지금 이 행복에 대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이 각자 다르더라도 결국에 그 끝은 같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수연, 돌아보다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고 지원했었나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이유를 대야 할 것 같지만..ㅠㅠ 나같은 경우는 단순히 해외봉사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라온아띠가 되고 싶었다. 물론 라온아띠가 되고 나서 보니 이전에 해왔던 해외봉사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처음엔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성장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막상 베트남에 오고 나니 현지적응과 활동에 대한 생각,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모습을 접하고 느끼다가 시간을 다 써버렸다. 딱 한가지 조금 확실한 건 내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점?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점? 여기서 중간평가를 계기로 흔들리던 방향성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었고,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를 잊지않고 잘 적용시키며 앞으로 2달의 시간 동안 부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라는 방향을 조금은 잡았다는 점에서 나는 행복하다. 무엇보다 이곳 문화를 접하고, 이 사람들에게 배우고 있는 지금 이 베트남 생활 자체도 행복한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다. 과연 나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는 생각을 했는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했는가. 아니면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서 행복한가. 이 부분에선 스스로 부족했고, 그래서 더 모르겠다.



수민, 돌아보다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고 지원했었나

나는 아무 목적 없이 치이고 상처받는 삶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지원했던 것 같다. 지원했을 당시에 라온아띠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라온아띠’가 내 삶의 남은 마지막 희망같이 느껴져 지원했었다.

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과 달리 많이 변한 것은 느껴진다. 내 삶의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는 내 주변을 챙기고 있는 모습에서 변한 나를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모르게 많이 성장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나는 남은 2개월 후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달라졌을지 기대가 된다.

나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일단 지금 나는 행복, 불안, 초조, 우울, 기대 이렇게 가득 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YES이다. 나는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 팀원이 있기에 우리가 다섯 명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팀과는 정말 행복하다.(다른 팀원은 행복하지 않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ㅎㅎㅎ 나는 지금은 우리 팀으로서 너무 행복하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skyline at dusk. The foreground is filled with a dense, colorful residential neighborhood with various rooflines and balconies. In the middle ground, several tall apartment buildings are visible. The background features a prominent, very tall skyscraper (the Lotte World Tower) standing out against a sky with soft pink and purple hues. Other modern high-rise buildings are scattered across the horizon.

십일월 에세이 기록하다

오재열



활동 돌아보기

지난 십일월 한달동안 YSD는 우리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해주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또 베트남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환경과 그 속의 사람들은 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었고, 많고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병원, 공장, 지방의 중학교, 국제학교, 자연 환경 등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는 신기한 것도 즐거운 것도 정말 많았다. 사실 나는 베트남에 온 이후로 ‘호치민’ 지역을 돌아다니고 알아가게 되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고, 궁금했던 것들이 위의 장소들 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무턱대고 찾아가 둘러보기도 했던 ‘나’이었다. 그런데 공식적인 활동으로서 우리 활동에 채워지게 되면서 나는 그 궁금했던 장소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그 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곳의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또 그 장소에 대해서 나의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가 새로운 것을 겪을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새로움’ 때문에 ‘힘든 면’도 있었다. 먼저, 새로운 기관과의 컨택이었기에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 했었고, 그 안에서 ‘낯선 너’와 ‘낯선 나’이었기에 교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다. 또, 베트남의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니 ‘5명 한 팀’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각자 다른 주제’를 인식하는 상황을 마주 하기도 했었다. 그 상황을 다루어 나가는 것은 나와 우리 팀에게 쉽지 않은 것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쉽지



않은 것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마주 할 수 있었기에 좋았다. 덧붙여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주 할 수 있어서 두 배로 좋았다’라는 감정으로 나는 정리를 해본다.

이번 달을 포함해 지난 3개월동안 나는 YSD가 쥐어 주는 활동에서 어려워 했고, 고민했고, 다루어 보고, 즐거워했다. 앞으로 남겨진 두 달은 나와 우리가 만들어 가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 또한 분명히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걸어 나갈 것이고, 경험을 토대로 보다 즐기며 걸어 나가는 내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후회가 남을지라도 너와 나 모두가 성장한 시간이 되어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 자신 돌아보기

에세이를 쓰기 위해 내 일기장을 들여다보니, 역시나 나는 지난 한 달도 고민했고 스스로에게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며 지내왔다는 것이 보인다. 나는 이번 달도 새로운 것들, 이미 마주했던 것들, 해묵은 것들을 마주 했었다. 그것에 대해 답을 내리기도, 반복 하기도, 미루기도 했었다. 고민은 많았다. ‘잘 한다’의 ‘잘’은 무엇일지, 옳고 그름은 무엇일지, 다름은 무엇일지,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나 스스로에게 잣대가 너무나도 높은 것인지 등 많은 고민에 고민이 이어져왔었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고민을 하면서 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하고 스스로에게 부딪혀 보았다. 또 이것을 통해 나는 지난 한달동안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과 ‘몰라하



는 시간'을 모두 보낸 것 같다. 내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답을 못 내릴 수도 나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나는 또 다시 '천천히 오래오래'라는 주문을 외웠고 외울 것이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혼자만의 싸움 결과, 나는 나를 조금은 알았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거워 한다는 것을. 내가 위로와 감동을 받고, 내가 위로와 감동을 줄 때 행복해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혼자 긴가민가 하던 것들은 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은 과거에 스스로 내린 '답'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답이었다. 비록 내가 '정답은 없다'라고 고민 했었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 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들 때문에 즐거웠다. 또 나 자신 때문에 힘들었고 나 자신 때문에 즐거웠다. 그러면서 감정과 기분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힘듦은 있었지만, 나는 성장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동화 간사님, 규홍 간사님, 승철 간사님, 규남 팀장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가 생기게 되었다. 중간 격려 활동이 마친 이 시점,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 나는 또 나와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새로운 환경을 만날 것이고, 익숙한 곳에서도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물론 즐거움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즐겨보고자 한다. '후회로써 만드는 즐거움'을 말이다. 규홍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 상 표



11월... 지금까지 베트남에 있던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더 적다.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베트남의 5개월을 사람 인생 100년에 비유하자면 이제 환갑이 막 지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트남의 5개월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이제 막 2시 반 정도 된 시간이다.

환갑은 인생이 끝난다는 마무리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시 반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그리고 정리하고 평가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점심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난 정도의 시간이다. 이제부터 무언가 시작해도 늦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지난 3개월간 시간에 나 그리고 라온아띠 베트남팀은 무언가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서툴지만 새로운 문제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벽하거나 프로페셔널 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아직 마무리하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방향성과 생각을 계속 이어가야 보람찬 하루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인생은 60부터. 그리고 나는, 오늘, 3개월을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온아띠는 지금 부터.

양 소 희



11월, 10월과 마찬가지로 또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이제 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빨라서 문득 시간을 붙잡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벌써 내가 반오십 $\pi\pi$ 이 되는 순간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다. 물론 나이 때문에 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야속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베트남 생활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11월에는 역시 내게 또다시 많은 고민과 숙제들이 던져졌다. 생각해보면 난 이곳을 오기 전에 굉장히 오만했던 거 같다. 이전에 나는 여기 와서 생기는 고민들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전에 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얼른 생각해보고 얼른 해결하려고 했던 거 같다. 고민이라는 것은 그 순간들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나의 관념들이 여기에 와서 차차 깨지면서 힘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자세로 고민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이전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 같다.

지금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고 생각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고민을 구지 이 5개월 안에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팀원들이 있었고, YSD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를 격려하려 와 주신 간사님들이 있었다.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곳 생활을 통해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과 우리만의 베트남 생활을 남은 2개월 동안 잘 마무리하며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 평가의 여부를 떠나서 '베트남 호치민팀의 라온아피는 이랬다'라고 나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 모두 한여름의 "merry christmas~"

이수연



#내가 라온아띠에 맞는 사람인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서울과 꽤나 비슷한 모습을 한 호치민에서의 생활이 과연 내가 한국에 있을 때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다. 단순히 이 곳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에 있어 “편하다, 쉽다” 라고만 생각했던 초반의 나를 후회하며 무엇인가 잘못되고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 있을 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모습을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볼 때면 “대체 어떻게 하면 바뀔래?” 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처음 라온아띠를 시작하며 “꼭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돌아가자.” 라고 했던 다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숙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을 익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과 감수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 돌아간다면 나는 조금이나마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2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5명이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란 걸 너무도 잘 알기에 순간순간을 솔직하고 귀하게 여기며 후회되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

#향수병

베트남에 온지 2달반쯤 되던 시점 나에게도 향수병이 찾아왔다.ㅠㅠ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지도 잊었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몇 주를 보냈던 것 같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더더욱 몰랐다. 그럴 때 마다 지금 내 상황을 팀원에게 공유를 해야 할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개인 시간에 카페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향수병을 어떻게 극복 했나.. 를 생각해보면 사실 뭐 대단한 게 없어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며 동기부여를 하고 저녁에 맥... 콜라 한 잔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 같다. 내 향수병은 일주일 반 정도 나를 괴롭히다 사라졌지만, 이 시기와 기간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다! 외국에 나오면 3개월에 한번씩은 향수병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상표 오빠의 말 대로 이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 어쩌면 타지 생활을 하는 나에겐, 우리에게겐 당연한 시간이었다 생각하기로 했다.

#YSD와의 관계

지금까지 조금씩 느껴온 YSD에 대한 건의사항, 바람들이 쌓이고 쌓이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결국 터져버렸다. 이제 더 이상 궁금증과 불안으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YSD 대표를 만나기로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했고, 조금이나마 대표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 또한 우리의 입장도 정확히 전달했다 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잘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까지 혼자 불평만 했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았다. 어쩌면 찾지 않으려 했을지도.. 하지만 팀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믿고, 힘들지만 조금의 노력을 하니 희망은 보이는 것 같다. 부디 지금 이 마음이 단순히 합리화로 그치지 않도록 YSD, 라온아띠 우리 모두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수민



나에게 11월은 감정 기복의 변화가 심한 달이었다. 하루는 베트남에서 지내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나의 활동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기도 하며 어떤 날은 극도로 우울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나는 안정적이지 못한 11월을 보냈다.

베트남에 와서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속도를 찾고 내 속도대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내 모습에서 많이 힘들었고 속상하기도 했다. 그래서 더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내 옆에는 우리 팀원들이 있기에 힘든 과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느낀다. 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팀원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11월은 '우리'의 가치를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 달이었다.

또한 간사님들을 만남으로서 W의 곡선의 하향 단계를 달리던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5개월의 활동 중에 중간 격려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 ㅎㅎㅎㅎ

간사님을 만나면서 우리 20명의 아띠들이 많이 보고 싶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ㅎㅎ 필리핀 팀, 미얀마 팀, 캄보디아 팀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ㅠㅠ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남은 시간 보내고~ 우리 2월 8일에 꼭 봐요! 올 때 제 선물 하나씩 사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우 리 함 께
좋 아 좋 아
서 로 서 로
많 이 많 이

